아들 도움으로 불법 믿은 '묘장엄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㊹ 묘장엄왕 이야기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옛적에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지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뢰음수왕화지(雲雷音宿王華智)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시대 중에 묘장엄이라는 왕이 있었으며, 왕비의 이름은 정덕이었고, 두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는 정장(淨藏), 둘째는 정안(淨眼)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일찍부터 보살이 행할 도를 닦아 왔으니, 이른바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과 자(慈), 비(悲), 희(喜), 사(捨)와 삼십칠조도법에 이르기까지 다 환히 통달해 있었으며, 또 보살의 정삼매와 일성수삼매 등, 대위덕장삼매 등을 얻어, 삼매를 다 통달해 있었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이 묘장엄왕을 인도하고 또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셔서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이때 정장, 정안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원하옵건대 어머니시여, 운뢰음수왕화지 부처님을 찾아가 뵈옵소서. 저희들도 모시고 가 직접 공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모든 천신과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니 마땅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아버지가 외도를 믿고 바라문의 법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고 함께 가자고 하여라.'

정장, 정안이 열 손가락을 모아서 합장한 다음 어머니께 아뢰었다. '저희는 법왕의 제자로서 사견을 지닌 이 집에 방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를 걱정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해져서 우리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리라.'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다라수 높이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공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였느니라. 상반신에서 물을 내뿜고 하반신에서 불을 내뿜으며, 하반신에서 물을 내뿜고 상반신에서 불을 내뿜으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에 가득하다가 다시 또 작아지며, 작아진 몸이 다시 큰 몸이 되기도 하며, 공중에서 사라져 홀연히 땅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땅속에 들어가기를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고 물 위에서 걷고 가기를 땅을 밟고 걷는 것과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왕인 아버지가 마음이 청정해져서 부처님을 믿게 하였느니라."

〈법화경〉의 특징은 과거 구원 겁 전의 부처님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운뢰음수왕화지 부처님 명호가 나왔다. 일월등명여래, 대통지승왕불 등 품(品)에 따라 등장하는 부처님 명호가 다양하다. 이 부처님들은 시간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부처님들이다. 이 부처님들이 모두 〈법화경〉을 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화경〉 법문이 일승(一乘) 법문이고 이 일승이 곧 불승(佛乘)이다. 부처가 되는 도리를 설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법화경〉에서는 성문, 연각의 이승법(二乘法)은 진실이 아니고 오직 일승만이 진실한 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경전을 두고 한 말에 "도를 깨닫는 데는 〈능엄경〉이 으뜸이고, 부처를 이루는 데는 〈법화경〉이 으뜸이다."고 했다.

묘장엄왕과 왕비, 그리고 두 아들의 한 가족이 아들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외도를 믿던 부왕을 설득하여 다 같이 부처님을 찾아가 〈법화경〉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묘장엄왕본사품〉의 주 내용이다. 묘장엄왕도 출가하여 수기(授記)를 받는다. 〈법화경〉의 중요한 키워드는 일승묘법(一乘妙法), 구원실성(久遠實成), 보살만행(菩薩萬行)의 세 가지다. 묘장엄왕의 정장, 정안 두 아들이 육바라밀과 사섭법을 닦아 삼매를 얻어 통달했다는 말에서 바라밀행이 삼매로 연결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천태지의(天台智顗)는 법화의 수행법으로 마하지관(摩訶止觀)을 제시하였다. 그는 〈법화현의〉를 저술하여 경의 제목만 해설하는데 〈법화경〉 경문보다 많은 20권에 달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명 존중 원칙, 어디까지 적용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㊹ 안락사와 존엄사

울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던 나무가 어느새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채 우두커니 서 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를 쓸쓸함과 아쉬움이 느껴진다. 이런 변화는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아름다웠던 단풍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삶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이렇듯 우리에게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 또는 위로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죽음이 최선의 결정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진통제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 또는 의료장치에 의해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삶을 기약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도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 편안한 죽음, 또는 평화로운 죽음을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라고 하며,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行爲) 또는 무위(無爲)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 종교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연명하는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서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빙자해서 연명 치료를 지속하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치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 본인이 생명을 연명하는 처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통과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해서 온화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소극적 안락사로 여겨질 수 있는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사와 시술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인 안락사, 비자의적인 안락사, 반자의적인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술 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자의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그의 생명을 단축시킬 의도로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극적 안락사로 여겨지는 존엄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할머니의 판결로 불리는 존엄사 판결이 2009년에 있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한 존엄사법인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무론적 관점을 가진 이들은 안락사라는 개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들은 존엄사라는 용어 대신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죽이는 것'과 '죽음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생명 존중의 원칙론을 고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⑳ 성불을 이루는 지관수행

차별없는 진여본성 회복해야

진여본성(眞如本性)의 의미

불자 여러분!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은 우주만유의 근원이며 일체 중생들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진여본성은 일체의 차별상을 떠난 모든 중생들의 동일한 하나의 근본마음 평등심입니다. 그래서 '일심' 또는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평등한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분별 망상을 지으며 그 망념의 업력에 따라 갖가지 차별적 경계상을 만들어서 그 망경계를 집착하고 갈애를 일으켜 업을 짓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가 진여본성에 상응하지 못하고 생멸하는 오염심으로 망념과 허망한 망상을 일으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망념과 망상분별을 끊고 진여본성에 상응할 수 있다면 일체의 망상경계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체의 차별적 경계상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본체인 진여본성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불교수행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념으로 인해 일어난 일체의 차별상과 분별망상을 멈추고 일체의 차별상이 없는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불교수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인식과정에서 오염된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생존을 위한 삶을 영위할 때 인식 과정에서 오염되고 탁해집니다. 또한 심층의식인 무의식 역시도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된 업식들로 인해 내면에서 번뇌와 분별망상을 한량없이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식 활동을 통해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정보들에 대한 집착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망상분별의 망경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번뇌와 갈애를 일으키며 업을 짓고 그 과보로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여본성에 상응하면 일체망상 사라져
육근통해 외부서 들어오는 인식정보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별망상 끊어야

그러므로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근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식정보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분별망상 역시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망념과 분별망상을 끊고 진여본성과 상응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상락아정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

불교를 수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진여본성과 상응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환언하면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되면 중생심이 곧 진여본성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곧 참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바탕이 곧 진여본성임을 믿고 생멸하는 중생심을 제어하여 멈추고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과 계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달음이란 분별하는 마음을 제어하여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이루어서 자신의 마음바탕이 곧 진여본성임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분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이루고, 그 다음은 분별을 통한 자세한 지혜의 관찰로 후득지(後得智)를 이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